

## ※ 삼국시대의 국왕과 행적 ※

【고구려】：부여에서 남하한 주몽이 압록강 유역의 졸본(환인)지방에서 건국(B.C.37)

**태조왕**(53 ~ 146) → **고국천왕**(179 ~ 197) → **동천왕**(227 ~ 248) → **미천왕**(300 ~ 331) → **고국원왕**(331 ~ 371) → **소수림왕**(371 ~ 384) → **광개토대왕**(391 ~ 413) → **장수왕**(413 ~ 491) → **문자왕**(491 ~ 519)

1)중앙집권국가의 형성	1)부자상속제의 확립	1)오와 친교하여	1)서안평의 점령	1)천연(선비족, 모용씨)의 침입	1)중앙집권국가체제의 강화	1)한강선까지 진출	1)광개토대왕비의 건립	1)부여의 정복
2)왕위세습(계루부,형제상속)	2)진대법의 실시	위의 견제	2)낙랑군의 축출	2)백제의 근초고왕에게	2)불교의 공인(전진, 순도)	2)왜의 격퇴(신라의 내물왕을 원조)	2)다면외교:남북조, 북방 민족	2)최대의 영토
3)옥저, 동예의 복속	①부족적 전통 5부를	2)서안평의 공격	3)중국은 5호 16국시대	전사(평양성)	3)전진과 수교	3)후연의 격파→요동지역의 확보	3)남하정책(평양으로 천도)	
4)5부족체제로의 발전	②축장들을 중앙의 귀족으로 편입	3)중국은 위·촉·오의 대립			4)태학의 설립	4)만주지역에 대한 정복사업의 전개	①왕권의 강화와 밀접	
					5)율령의 반포	5)연호의 사용	4)백제의 수도인 한성의 함락→한강유역의 차지(중원 고구려비)	
					6)관복의 제정	①영락:최초	5)흥안령일대의 초원시대 장악	
						②의미:왕권의 강화, 주체성의 표현	6)경당의 설립:사학, 한학과 무술을 가르침	

### 【백제】

1)위례성에서 건국	<b>고이왕</b> (234 ~ 286)	→	<b>근초고왕</b> (346 ~ 375)	→	<b>침류왕</b> (384 ~ 385)	→	<b>아신왕</b> (392 ~ 405)	→	<b>비유왕</b> (427 ~ 455)	→	<b>개로왕</b> (455 ~ 475)	→	<b>문주왕</b> (475 ~ 477)	→	<b>동성왕</b> (479 ~ 501)
2)마한의 소국으로 출발	1)중앙집권국가의 형성		1)중앙집권국가체제의 정비(완성)	불교의 공인							1)북위에 국서를 보냄	웅진으로 천도(475)	탐라국의 복속		
3)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가 한강유역의 토착세력과 유이민세력의 결합으로 성립(B.C.18)	2)한강유역의 장악		2)부자상속제의 확립	(동진, 마라난타)							2)장수왕에게 전사				
4)한의 군현을 막아내면서 성장	3)율령의 반포		3)마한의 완전 정복												→결혼동맹의 체결
	4)관복제의 도입, 관등제의 정비(16관등)		4)고대상업세력권의 형성(요서, 산둥, 일본으로 진출)												
	5)중국의 선진 문물 수용→정치체제의 정비(6차평)		5)동진과 수교												
	6)남당의 설치		6)역사서의 편찬:서기(고흥)												
	7)왕위세습(형제상속)		7)일본에 철지도의 하사												

→ **무령왕**(501 ~ 523) → **성왕**(523 ~ 554) → **무왕**(600 ~ 641)

1)22담로의 설치	1)사비로 천도	2)양과 통교	1)머륜사의 건립												
→목적:지방세력의 통제	3)중앙관서의 정비(22부)		①익산으로의 천도 추진												
2)양(남조)과 수교	4)국호를 남부여로, 왕족의 성을 부여서로 바꿈		②당시에 추진된 백제의 중흥을 반영												
3)중흥의 발판 마련	5)행정구역의 정비(중앙:5부,지방:5방)		2)왕흥사의 건립												
	6)일본에 불교의 전파(노리사치계), 겸익의 등용														
	7)한강 하류지역의 일시 회복														
	→진흥왕의 배신으로 상실														
	㉠나·제동맹의 파기(553)														
	㉡신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하는 계기														

--	--	--	--	--	--	--	--	--	--	--	--	--	--	--	--

### 【신라】

1)진한의 소국인 사로국에서 출발	<b>내물왕</b> (356 ~ 402)	→	<b> 눌지왕</b> (417 ~ 458)	→	<b>소지왕</b> (479 ~ 500)
2)경주지역의 토착민집단과 유이민 집단의 결합으로 건국(B.C.57)	1)중앙집권국가의 형성		부자상속		1)경주에 시장(경사시)의 개설
3)석탈해집단이 등장하면서 박석김의 3성이 교대로 왕위의 차지	통치자의 칭호: 거서간→차차웅→ <u>이사금</u> →2)마립간의 칭호 사용→왕(지증왕)				2)우역의 개설


--	--	--	--	--	--

→ **지증왕**(500 ~ 514) → **법흥왕**(514 ~ 540) → **진흥왕**(540 ~ 576) → **진평왕**(579 ~ 632) → **선덕여왕**(632 ~ 647) → **진덕여왕**(647 ~ 654) → **무열왕**(654 ~ 661) → **문무왕**(661 ~ 681) → **신문왕**(681 ~ 692)

1)한화정책의 추진	1)중앙집권국가체제의 완비	1)한강유역의 차지	1)수와 공수동맹(결사표)	1)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	1)당과 교류(태평송)	1)진골신분으로 최초 즉위	1)삼국통일	1)국학의 설립
①주군의 정비	2)불교의 공인	①상류:단양적성비	2)새로운 국가정신의 확립(세속5계)	2)첨성대, 분황사의 건립	2)집사부의 설치	2)왕권의 전제화 추진	2)우이방부(법률)의 설치	2)갈문왕제의 폐지
②왕, 신라로 개정	3)불교식 왕명의 사용	②하류:북한산(순수)비	3)위화부(인사)의 설치	3)계율종의 개창(지장)	①임무:국정 총괄, 국가의 기밀 사무			3)예작부, 공장부의 설치
2)우경의 실시(장려, 권장)	(법흥왕 ~ 진덕여왕)	2)불교 교단의 정비(국통→주통→군통)	4)예부(교육, 의례)의 설치	4)동원경(강릉)의 설치	②수상:중시			4)군사조직의 정비(9서당, 10정)
3)동시의 설치:동시전(동시의 감독 관청)을 두어 관리	4)금관가야의 복속	↳최초:고구려의 승려 해랑	5)조부(재정)의 설치		3)좌이방부(법률)의 설치			5)지방행정조직의 정비(9주, 5소경)
4)순장의 금지	5)율령의 반포	3)사찰의 건립:흥륜사, 황룡사(당시의 평창 의지를 반영)			4)창부의 설치			6)녹읍의 폐지→관료전의 지급
5)우산국의 정벌(이사부)	6)병부의 설치(군사)	4)대가야의 정복:창녕비						
6)실직주(삼척)의 설치	7)상대등의 설치	5)함경도지역으로 진출:황초령비, 마운령비						
	8)연호의 사용:건원	6)역사서의 편찬:국사(거칠부)	7)화랑도의 공인(국가적 조직으로 정비)					
	9)골품제도의 정비	8)품주의 설치	9)연호의 사용:개국, 대창	10)국원경(충주)의 설치				